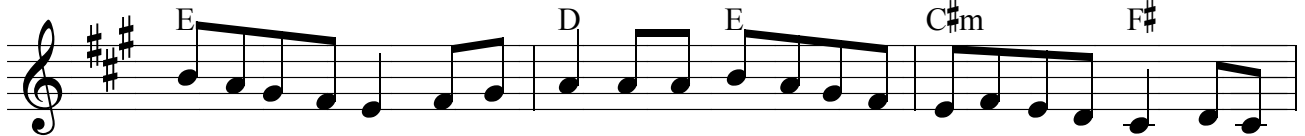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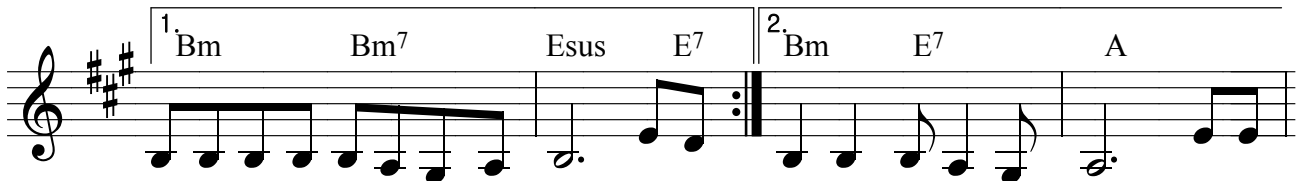
박성호



하나 님의 사-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 님의 평-안을
 님께 찬-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 님의 선하심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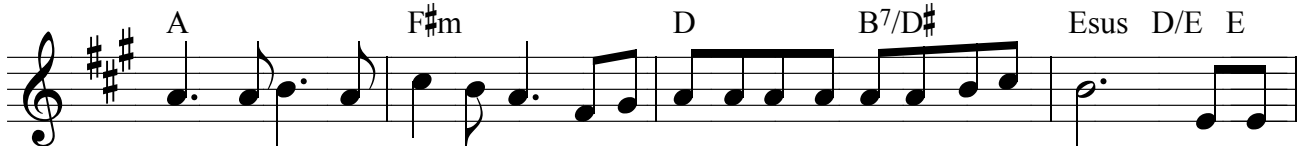
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
 닦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



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하나 자녀 삼으셨네 하나



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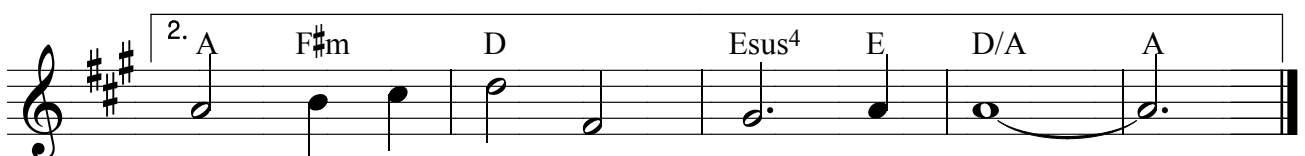
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



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



어느 곳에 있든 지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



라 주만 바라볼지라 -